



# Art

아트인컬처  
February 2026

Special Feature /

- ① 키 플레이어 11인의 직설  
나의 비전, 우리 미술계
- ② 2026 전시 글로벌 로드맵  
핫 토픽 × 메가 이벤트

Artist /

허윤희, 가득찬 빔  
허산옥, 기생화가의 신세계

Report /

타이중그린뮤지엄브러리 개관

Critic /

조각론, 전국광 김인겸 정현

## 몸, 여성의 지도

장파展 2025. 12. 9~2. 15 국제갤러리 서울

이은실展 2025. 12. 17~1. 31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오랜 시간 동안 여성의 신체와 경험은 여성 자신의 소유로 다뤄지지 못했다. 이 배경에는 우선 서양 철학의 전통에서 신체와 경험 자체가 낮은 위계의 개념으로 여겨져 왔다는 역사적 사실이 있다. 플라톤의 비유를 빌리자면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신체와 경험은 이성이란 마부가 고삐를 잡고 이끌어야 하는 짐승으로 취급됐다.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여성과 노예는 짐승 자체였다. 이게 바로 이성과 남성의 대립어이자 '바깥' 개념이란 이름으로 여성과 신체가 강력하게 결합하는 지점이다. 주디스 버틀러의 정리처럼 남성적 질서 내에서 여성/동물/노예와 같은 '낮은' 존재는 끊임없이 언어/규범/국가와 같은 '높은' 개념의 주변으로 배치 혹은 추방되며, 이를 통해 양자 간의 경계를 유지/보수/재생산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낮은' 존재는 구조적 차원에서부터 이미 희생/은폐/부인되도록 위치 지어졌다. 삶/생/살의 차원에 속하는 '낮은' 물질 또한 이런 과정에서 희생된다. 그러므로 이젠 놀라울 것도 없는 소식: 신체는 누구나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남성보다 더욱 '동물'적인 여성에게 속해 있고 그렇기에 정신보다 열등하다는, 아니 심지어 '유해'하다는 금욕주의 '인셀'(비자발적 독신주의자) 같은 남자 철학 명제는 이런 착취적인 구조를 보호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이런 억지 명제에서 신체와 여성은 단지 통제하고

훈육하고 관리해야 하는 사물로 전락한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오늘날 페미니즘은 이런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세련되지 않았는가? '마이 바디 마이 초이스'를 말하는 이런 시대에 여전히 여성의 신체와 경험에 대한 역사적 억압의 관점을 논하다니, 이건 거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그러나 '이성=남성'과 '신체=여성'의 이원론적 대립과 그에 따른 결과를 진지하게 고민해 온 페미니스트 이론은 다른 대안을 제공한다. 이는 이를테면 오늘날 여성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권리'와 별개로 여성의 신체와 경험은 여전히 남성적 언어/질서/경제에 사로잡혀 있어 여성 자신조차 이를 충분히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관점을 가리킨다.

### 누가 여성의 몸을 '가짜'로 만들었나

뤼스 이리가레, 줄리아 크리스테바, 엘리자베스 그로츠, 모이라 게이튼스와 같은 여성/페미니스트 이론가는 성차화된 여성 신체와 경험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이를 기존의 '보편적' 가치 체계에서 분리하여 복원하려 시도한다. 각기 다른 맥락과 배경을 지닌 이들의 주장을 하나의 관심으로 요약하기 쉽진 않지만, 그럼에도 굳이 말하자면 이는 '대항 상상계(counter-imaginary)'라는 개념으로 압축된다. 모이라 게이튼스에게 상상계란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존재론적 범주"로 "우리가 살아가는 온갖 상속된 이미지와 상징으로 둘러싸인 세계"를 의미한다.

상상계 개념은 "주체성의 다양한 형식을 구성한다"라는 점에서는 루이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 개념과 유사하나, 일상에서 흔히 발견되는 '성별화된 신체 이미지(gendered body images)'에 주목하며 사회적 상상계의 수행성을 '허위'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지점에서 차별된다. 그러므로 관건은 '허위'의 타파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기능하고 있는 것은 물론 심지어 우리가 좋든 싫든 의존하는 "사회적 상상계의 구성 과정을 추적하고 재창조하는" 작업이다. 이런 작업이 바로 대항 상상계의 건설이다. "억압적 상상계"에 대항하여 "낮은 이미지와 상징을 변형해 새로운 비유와 재현을 집단으로 생산"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이런 분야의 개척자를 이미 알고 있다—바로 여성 예술가들이다. 이들은 '보편적' 인식 체계를 초과하는 자신의 신체와 경험을 재현하기 위해 '다른' 시각 언어와 표현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발명하려 시도했다. (조꽃씨, 『모이라 게이튼스』(커뮤니케이션북스, 2024))

장파와 이은실은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은 다른 어떤

장파 <Gore Deco—Oh, Those Breasts> 리넨에 유채, 오일 파스텔, 거즈, 황마, 머리카락, 전사 인쇄 162.2×130.3cm 2025\_장파(1981년생)는 '여성적 그로테스크'를 전면에 내세운다. 전통 여성상을 전복하고, 남성 중심의 시각 언어를 깨부순다.





이은실 <엄추지 않는  
협곡> 종이에 채색  
207×120cm(부분) 2025\_  
이은실(1983년생)은 인간의  
원초적 본능과 억압된 욕망을  
탐구해 왔다. 이번 개인전  
<파고>는 작가가 출산 중에  
경험한 격렬한 에너지를 붉은  
용암과 협곡 등 자연 풍경에  
빚었다.

예술가와도 유사하지 않은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하고 있다. 이번 개인전에서 장파는 '내장(Gut)'의 감각과 쾌락, 그리고 이은실은 '출산'의 경험과 서사에 초점을 맞춰 신체 내부에 대한 '다른' 상상계를 제안한다. 이는 가히 '대항 해부학(counter-anatomy)'이라 불릴만한 영역의 전개이다. 대항 해부학이란 과학적 사실이 재현/재생산하는 '보편적', 즉 남성적 상상계의 억압에서 벗어나려 시도하는 상상적/심리적/감각적/개인적 신체 도식(Body schema)을 의미한다. 거창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실은 우리는 이미 이런 사고에 익숙하다. 오늘날 실증 과학의 시대에는 씨알도 먹히지 않는 소리지만 19세기까지만 해도 여성의 자궁은 온갖 신체적/정신적 질병의 원인을 제공하는 여성이란 종의 근본적인 결함으로 간주됐다.

#### 카운터 아나토미, 희열과 감각의 신체

이런 '가짜 해부학'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사실로 기능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여성의 자궁이 신체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목됐고, 그리스에서는 자궁의 형태가 '까뒤집힌 음낭' 같다고 묘사되며 존재 자체로 남성 성기의 열화 버전이라 정의됐다. 플라톤은 그의 악명에 걸맞게 "자궁은 아이를 생산하고 싶어 하는 짐승"이라 표현했다(라나 톰슨, <백영미 역>, 『자궁의 역사』(아침이슬, 2001)). 그러니까 남성 중심적인 사회적 상상계 내에서 여성의 신체 내부라는 공간은 그들만의 혐오와 공포를 완화하기 위한 '뇌피셜'로 채워진 어떤 용기(vessel)로 상상됐던 셈이다. 한편 20세기 이후에는 광학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시각을 통해 여성의 신체 내부를 '완전히' 관통하고 지배하기 위한 의지가 포르노그래피라는 장르를 통해 구현된다. 린다 윌리엄스는 『Hard Core』(1990)에서 이를 "보이는 것의 광란"으로 정의하며 포르노그래피가 여성의 신체 내부와 감각에 대한 지식을 시각적 증거를 통해 재현하고 이러한 지식을 쾌락으로 전환하는 영화 장르라고 설명한다. 남성 관객의 '아는' 쾌락을 위해 여성의 '실제' 해부학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이미 여성에 대한 우리의 사회적 상상계는 늘 '유사'의, '허구'의, '가짜'의 상상계였던바 여성이 자신의 육체를 통해 '보는' 상상적/감각적/심리적 현실이 딱히 그와 달리 '특수하게' 취급받아야 할 이유는 없으리라.

나는 이 글이 부디 장파와 이은실의 전시에 달린 각주로 기능하길 바란다. 자, 이제 상상하자. 장파의 눈과 여성 성기가 달린, 타투로 '꾸민', 입구도 출구도 없이 딱 찬 내장은 다른 어떤 외부 계기도 필요로 하지 않고 혼자서도 만족하며 늘 맞댄 피부로 쾌락을 분비하고 분출하는

화려하고 요란스러운 기관이다. 수음하는 기관이다. 동물의 단면을 자른 듯한 장파의 절단 애호에는 그러나 포르노그래피의 '관롱' 의지는 없어 보이는데, 왜냐하면 그의 '대항 해부학'은 마치 벽지를 얇게 펴 바르듯 수평 확장만을 지속하기 때문이다. 위와 아래도 앞과 뒤도 모두 위계 없이 섞여 일종의 카니발적 시각(성)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의 내장 '벽지'는 무한 쾌락과 관능을 생산하는 기계로서 여성의 신체 내부를 그려보게 만든다. 그러므로 장파의 대항 해부학에서 여성의 육체는 늘 터질 듯한 밀도와 강도를 가진 폭발 직전의 난폭한 물질 덩어리다.

이은실의 경우 출산-이후의 경험은 신화적 인물의 대서사시에 등장할 법한 자연과의 고행적인 대결처럼 묘사된다. 바다와 사막, 협곡과 산맥과 같이 오늘날에는 흔히 SF 영화에서 발견되는 전통적인 '승고'의 장소를 심리적 배경으로 삼아 재현되는 출산-이후라는 사건은, 한편으론 물론 모성적 육체를 자연에 유비하는 오랜 사고에 의존하나 다른 한편으론 바로 그런 신화를 이용하여 모성 신체 도식의 분절과 해체까지 나아간다. 문자 그대로의 '뼈'와 '살'의 분리가 있다. 자연이 그러하듯 모체의 창조는 또한 파괴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장파의 강한 핑크가 화면을 통해 시선을 빨아들이는 음의 공간을 개방하는 반면에, 이은실의 주황에 가까운 짙은 빨강은 금방 말라붙은 선혈처럼 표면에 늘어붙어 시선을 일종의 촉각처럼 전환한다. 깊게 붉고 푸른 그의 신체 풍경은 과거 유행했던 인체 탐험 영화 장르처럼 관객 자신이 매우 작아져서 작가의 '거대한' 내부를 목격하고 있는 것만 같은 착각에 들게 한다. 여성의 신체 내부가 속이 빈 '용기'라고 간주했던 유사 해부학과 달리 이은실의 대항 해부학은 여성의 신체 내부를 상상, 환상, '환각', 고통, 공포—무엇보다 의미를 초과하는 희열의 감각과 도상으로 끌어올라 넘치는 창조적 에너지의 시원적 공간으로 표상한다. 그리고 이는 모든 허구가 그렇듯이 실재기도 하다.

/이 연 속